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 그룹, 日 골드디스크 대상 '씩쓸이'

‘세븐틴’·‘르세라핌’·‘뉴진스’·‘정국’ 등 수상
세븐틴,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 등 6관왕

‘세븐틴’·‘르세라핌’·‘뉴진스’ 등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 그룹들이 제38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을 휩쓸었다.

13일 일본 레코드 협회가 발표한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세븐틴은 이 시상식에서 6관왕을 차지했다.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 부문에 비롯 미니 10집 ‘FML’과 일본 베스트 앨범 ‘올웨이즈 유어스(ALWAYS YOURS)’, 미니 11집 ‘세븐틴스 헤븐(SEVENTEENTH HEAVEN)’으로 아시아 부문 ‘베스트 3 앨범’을 석권했다.

이와 함께 ‘FML’이 아시아 부문 ‘앨범 오브 더 이어’, 콘서트 실황을 담은 ‘세븐틴 월드 투어 ‘비 더 선’ 재팬(SEVENTEEN WORLD TOUR ‘BE THE SUN’ JAPAN)’이 아시아 부문 ‘뮤직 비디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세븐틴이 한 해 동안 가장 활약한 아시아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아시아 부문 ‘베스트 3 앨범’ 3개 작품을 한 아티스트가 독식한 것은 시상식 역사상 세븐틴이 최초다.

세븐틴은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 항상 세븐틴을 응원해 주시는 카렛(CARAT·팬클럽), 그리고 저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르세라핌은 2관왕을 차지했다. 신인상에 해당하는 ‘뉴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와 아시

아 부문 ‘베스트 3 뉴 아티스트’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지난해 1월 일본 데뷔 싱글 ‘피어리스(FEARLESS)’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지 활동을 시작한 르세라핌은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첫 수상과 동시에 2관왕을 안았다.

르세라핌은 “팀으로서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뉴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베스트 3 뉴 아티스트’의 주인공이 돼 영광이다. 저희 음악을 들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피어나(FEARNOT·팬클럽) 분들께 감사하다. 르세라핌만의 이야기가 담긴 음악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했다.

뉴진스는 일본에서 데뷔하기도 전에 이 시상식에서 2개의 트로피를 쟁겼다. 아시아 부문 ‘베스트 3 뉴 아티스트(Best 3 New Artists)’에 선정됐고, 히트곡 ‘OMG’로 아시아 부문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스트리밍(Song of the Year by Streaming)’을 받았다.

뉴진스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순간들을 ‘OMG’와 함께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추억 속에 뉴진스의 음악이 남기를 바란다”라며 “더 좋은 음악을 들려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팜스타 정국은 첫 공식 솔로 싱글 ‘세븐(Seven)’으로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다운로드’ 아시아 부문을 수상했다.

르세라핌, 뉴진스에 이어 아시아 부문 ‘베스트 뉴 아티스트’ 한 자리는 SM엔터테인먼트

트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RIIZE)’에게 돌아갔다. K팝 시스템 기반의 일본 그룹 ‘엑스지(XG)’가 일본 부문 ‘베스트 5 뉴 아티스트’로 꼽혔다.

지난해 가장 활약한 아티스트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아티스트’의 일본음악 부문은 3년 연속 그룹 ‘스노우 맨(Snow Man)’이 차지했다. ‘올해의 아티스트’ 서양음악 부문은 2년 연속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The Beatles)’로 결정됐다. 스노우 맨은 해당 부문 세 번째, 비틀스는 해당 부문 아홉 번째 수상이 된다.

특히 스노우맨은 ‘올해의 아티스트(일본 음악)’, ‘올해의 뮤직비디오(일본 음악)’를 비롯 일곱 개의 트로피를 쟁겼다. 스노우맨 멤버 라울은 “2023년에 받은 응원을 바탕으로 올해 제작할 음악 작품의 악곡, 영상 모두 퀄리티를 높이겠다.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이밖에 ‘뉴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일본 음악)’는 ‘트래비스 재팬(Travis Japan)’, ‘앨범 오브 더 이어(일본 음악)’와 ‘싱글 오브 더 이어’는 ‘킹 앤 프린스(King & Prince)’,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스트리밍(일본 음악)’은 ‘아이돌’의 ‘요아소비(YOASOBI)’, 특별상은 걸그룹 ‘아타리시이 각코노 리더즈(新しい学校のリーダーズ)’, 내달 첫 내한을 앞둔 밴드 ‘킹 누’, 싱어송라이터 바운디(Vaundy)’에게 돌아갔다.

1987년 시작된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은 일본레코드협회가 음악 산업 발전에 공헌한 아티스트와 작품에 시상하는 시상식이다. 1년간 발매된 음반, 뮤직비디오 등의 판매 실적, 스트리밍 재생 실적 등에 따라 각 부문 수상자·수상작품을 선정한다.

뉴시스



NCT 드림, 런전·제노 트레일러 공개...“고통 겪는 청춘 암시”

오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공개 예정



그룹 ‘엔시티 드림(NCT DREAM)’이 런전, 제노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1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0시 유튜브 NCT 드림 채널에는 ‘이스케이프

프 필름 : 챕터 2()SCAPE Film : Chapter 2’)가 공개됐다.

‘컨퓨즈드(Confused)’라는 부제 아래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인 런전과 제노의 스토리와 수록곡 ‘숨(Breathing)’의 음원 일부가 어우러진 드라마틱한 영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영상 속 런전은 반복되는 명령과 밀려드는 혼란의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혼란의 타겟이 아닌 유리에 바친 자신을 쓰고 무너져 내린다. 반면 제노는 전혀 미동 없이 무뎠답하게 혼란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된 두 인물의 이야기와 감정이 눈길을 끈다.

더불어 슬픈 표정으로 울먹거리며 나비 그림을 태우는 런전, 등에 있는 상처와 침대 밑에 숨겨진 날개 그림이 대조되는 제노의 모습은 저마다의 고통을 겪는 청춘의 현실을 암시한다. 또한 서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신곡 ‘숨(Breathing)’이 삽입되어 감성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수록곡 ‘숨(Breathing)’은 미디어 템포의 발라드 곡이다. 가사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든 순간,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너’라는 존재에 대한 고백을 담았다. 마크, 제노, 재미, 지성이 랩메이킹에 참여해 진솔함을 더했다.

한편, NCT 드림의 새 앨범 ‘드림 이스케이프(DREAM()SCAPE)’는 오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공개되며, 같은 날 음반으로도 발매된다.

트레저 ‘빛 나는 솔로’, 日 OTT서 인기



드된 관련 콘텐츠들 또한 꾸준히 상승세를 거듭해 현재 조회 수 2500만에 육박했다.

국내 시청률은 아직 미미하다. 지난 2일 SBS TV에서 첫 방송한 뒤로 닥스코리아 전국 유료 기준 시청률 0.5%(1회), 0.7%(2회)를 기록했다. 멤버들이 트레저 캐슬에서 나홀로

그룹 ‘트레저’의 새 프로젝트 ‘빛 나는 솔로(SOLO)’가 일본에서 먼저 반응을 얻고 있다.

12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빛 나는 솔로’가 전날 일본 레미노(Lemino)에서 인기 랭킹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역대 ‘K팝 버라이어티’ 콘텐츠 가운데 일간 최다 시청 기록도 달성했다. 레미노는 일본 최대 통신사 NTT 도코모가 서비스하는 현지 주요 OTT 플랫폼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태국, 대만 등의 플랫폼에서 현지 콘텐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위권에 랭크됐다. YG 공식 유튜브에 업로

시간을 보내며 각자의 매력을 어필하고, 여성 출연자들의 선택을 받는 콘셉트다. 아이돌판 연애 예능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글로벌 그룹인 트레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태국·대만 등에서도 동시 방영된다. 트레저는 최근 7개 도시·16회차에 달하는 일본 두 번째 대규모 투어 ‘리부트 인 재팬(REBOOT IN JAPAN)’으로 30만 관객을 운집했다. 오는 5월부터 아시아 투어를 시작하고, 7월 일본 팬미팅 투어를 앞두고 있다.

대마·은퇴 탐 이어 미투 오달수도 ‘오겜2’ 합류

배우 오달수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한다. 12일 소속사 씨제스 스튜디오와 업계에 따르면, 오달수는 이 작품에 캐스팅됐다. 배역과 분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달수는 2018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논란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 당시 오달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피해자가 JTBC와 직접 인터뷰에서 성폭력 사실을 밝히자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모두 나의 잘못이다. 전부 내 탓이고 나의 책임”이라고 말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오달수 성폭력 사건은 공소시효 종결로 경찰 정식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듬해 8월

내사 종결됐다. 이후 오달수는 영화 ‘이웃사촌’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등에 출연했고, ‘베터랑’ 등에도 나올 예정이다.

오달수가 합류하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논란 속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넷플릭스가 공개한 출연진 중엔 그룹 빅뱅 출신 탐이 포함되면서 일부 팬의 반발을 불러왔다. 탐은 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사실상 연에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직접 “한국에서 컴백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올해 말 공개 예정이다.



이수영, 리메이크 음원 ‘라라라’ 발매

가수 이수영이 자신의 명곡을 리메이크했다. 12일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에 따르면, 이수영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플랫폼에 복학가왕 프로젝트 여덟 번째 곡 ‘라라라’를 발매한다.

‘라라라’는 지난 2002년 발표된 이수영의 정규 4집 ‘마이 스테이 인 센다이(My Stay In Sendai)’의 타이틀곡으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리메이크 버전은 드라마틱한 스트링 사운드와 이수영의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새롭게 완성됐다.

이수영이 참여한 복학가왕 프로젝트는 가왕대 음악 동아리를 배경으로 한 세계관 속에서 복학한 가왕이 찬란했던 과거를 재조명하는 음악 프로젝트다.

한편 이수영은 지난 1999년 정규 1집 ‘아



이 빌리브(I believe)’로 데뷔했다. ‘딩그러니’(2003), ‘힐링리’(2004) 등을 히트시켰다.